

<2025년 1월 19일 주일 말씀>

하나님이 보는 운명

본 문 :

<마태복음 7장 1-14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1장 4-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디모데후서 2장 20-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전체>

(1-2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보는 운명’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주팔자, 신년 운세, 운명을 봐 준다고 하셨으니

모두 말씀을 잘 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성구를 특히 많이 찾아 넣어 보내니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성경도 깊이 읽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 세상의 이치를 보아라.

길 자체로 사고 나는 위험한 길이 있고, 안전한 길이 있다.

사람도 위험한 사고(思考)자가 있고, 안전한 자가 있다.

같은 땅도

팔고 사는 시장과 생산지, 농촌과 공장이 각기 정해져 있고,

바다, 육지가 정해져 있고,

차, 비행기, 열차가 정해져 있지 않냐.

남자, 여자가 정해져 있고,

하나님 편, 세상 편이 정해져 있다.

○ 운명은,

‘길 자체’가 정해져 있다.

사망 길과 생명 길,

지옥으로 가는 길과 천국으로 가는 길,

길 자체가 정해져 있는 운명이다.

사람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 길로 가면 그 운명이다.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를 보면

좁은 길은 생명 길, 넓은 길은 사망 길이라고 하였다.

(마 7: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왜?

하늘나라로 구원받아 생명으로 가는 자는 적고,

하나님과 주를 안 믿고 사망으로 가는 자는 많기 때문이다.

선생이 영계를 가서 보니

생명 길로 가는 자는 가끔 있었고,

사망 길은 군중이 가고 있었다.

(영상 1 시작)

- 세상에서도 모래사막 길이 있고,
좋은 소나무 길이 있다.
길 자체가 정해져 있고,
지역 자체가 정해져 있다.
내가 가는 대로 그 길에 따라
그 길에 속한 운명으로 결정된다.

(영상 1 끝)

-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결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다.
땅을 사막, 바다, 육지로 창조해 놓으신 것처럼 예정해 놓았다.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그 길을 자기가 스스로 가면서
“이것이 내 운명이다.” 말들 한다.

세상을 보아라.

- 모두 위치가 정해져 있다.
 - 길도 바닷길과 육지길, 아스팔트길과 비포장길로 정해져 있다.
- 이같이 운명도 ‘길 자체’를 정해 놓았다. 예정돼 있다.

○ 사람들은 흔히 고통 길로 가면서

‘내 운명 천명은 고통의 인생길이구나.’ 한다.

또는 아예 전능자 믿고 축복받으면서 좋은 길로 가며 살면
‘내 운명이 이같이 예정됐구나.’ 한다.

배우고 잘하면 운명이 바뀐다.

나쁘게 되는 운명도

깨닫고 열심히 하면 좋은 운명으로 뒤바뀐다.

월명동을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살았으면 지옥 고통의 운명이었다.

하나님 뜻 알고 깨닫고 20년 이상 공사하여 만드니
지상 천국 환경이 되었다.

고로 하나님 뜻 이루어서 몸도 마음도 영도
천국의 삶의 운명으로 바뀌었다.

이치가 맞지 않느냐.

그동안 인생 살아 보지 않았느냐.

세상에서 운명 사주팔자 보는 것,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의 운명이 정확하다.

- 자기가 나쁜 길 가듯 나쁘게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으니
 “하나님, 왜 나를 이같이 고통스럽게
 살게 예정했나요.” 한다.
 또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아서 고통의 운명이 되게 하나.” 원망도 한다.
 고통스러우니 자살하기도 한다.
 OECD 자살률 통계를 보면 한국이 세계 1위다.
 고로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보다 한국은 내 말씀 듣고 살아서
 나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나라다.” 하셨다.
 그런데 우울증을 겪는 자가 너무 많다.

기도하고 시대 말씀 듣고
천 년 혼인 잔치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걱정 근심 말고
자기 할 일만 충성으로 하여라.

-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길이 정해져서 창조되어 있듯이
 길 자체가 ‘사망 길’ 과 ‘생명 길’ 이 있다.
 누구든지 생명 길로 가면 천국으로 가고,
 사망 길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운명이다.
 하나님과 주를 믿고 의롭게 살면 생명 길, 천국 길로 가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성령, 성자도 천국도 없는 사망 길로 간다.

다시 한 번 말씀한다.

○ 하나님이 네 운명을

“너는 지옥.” , “너는 천국.”

이렇게 정해 놓지 않으셨다.

다만, 길을 정해 놓으셨다.

크게 나누면 두 길로 정해 놓으셨다.

바로 ‘천국 길’ 과 ‘지옥 길’ 이다.

길 자체가 지옥 또는 천국으로 가는 운명이다.

길 자체가 지옥 길과 천국 길이다.

길 자체가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면서

“이것이 내 운명이다.” 한다.

○ 길 자체가 그 운명으로 정해져 있으니

길 선택을 잘하여라.

너의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길의 운명이 사망과 생명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알고 배워서 사망 길을 안 가면 된다.

누가 사망 길로 좋아서 가겠느냐.

자기 삶이 불의하면 불의한 그 길로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주를 믿고 진리로 살면 사망 길로는 안 가진다.

선으로 의를 행하면서 살면 천국 길로 가진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낸 자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의를 행하여
 육도 혼도 영도 생명 길로 가야 한다.
 그러면 육신 행하는 것을 통해
 영원한 천국 세계의 운명으로 바뀐다.

- 아예 자기가 길을 잘 택하고 가야 한다.
 길을 잘 택하고 가면 수고를 조금 해도 많이 얻는다.
 그러나 길을 잘못 택하고 가면 수고해도 실패한다.
- 사망 길을 가면서 복 받기를 원하냐.
 잘되기를 희망하느냐.
 실패 길을 가면서 ‘잘되겠지.’ 하며 목숨 다해서 하느냐.

분별하고 선택을 잘하기다.
 가야 할 길은 주로 말미암아 가는 하늘 천국 길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믿고
 그 말씀 듣고 살면 천국 길로 가고,
 믿지 않고 살면 사망 길로 가게 된다.

너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전도하여 구원시켜
 천국 길로 가게 운명을 바꿔 놓아라.

선택은 자기가 생활과 행위로 한다.
 생명 길로 가면서 수고해야 영원한 복이다.

- 길 자체가 운명이다.
 그런데도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지옥 길, 사망 길로 가면서

“이것이 내 운명이다.” 한다.

벗어나면 된다. 지옥 길을 안 가면 된다.

고통 길로 가면서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다고도 한다.

그럼 공의롭게 못 한다.

하나님이 지옥 가라고 예정하셨잖나.

자기 삶이 지옥으로 가게 하고, 천국으로 가게 한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준다고 말씀하셨다.

(마 7:9~11)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14절을 통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하셨다.

○ 선생이 영의 세계에 가 보니

- 사망으로 가는 많은 자들이
죄 짐을 짊어지고 넓은 길로 갔다.
그 짐은 자기가 지은 죄 짐이었다.
하나님께 회개치 않아서다.
- 천국 길은 좁고 빛이 났다.

천국으로 가는 자는 가끔 보였다.

회개하고 주를 믿고 가는 자는 좁은 길로 갔다.

이같이 길이 정해져 있다.

○ 자기가 가는 대로 그 길에 속한 운명이 된다.

고로 영원한 운명 길을 하나님 뜻대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실패다. 망한다.

영계 가서 보아라.

달같은 한 번 깨지면 생명 끝난다.

자기 인생도 작고 큰 대로 그러하다.

너희 모두 다른 자들을 보고 거울삼지 않았느냐.

자기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하기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도 있다.

좋은 것은 예정해 놓으셨다.

메시아, 중심인물, 선지자를 키우고

때 되면 보내시어

그가 하나님 성령과 같이 구원하게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좋게 예정해 놓았어도 행치 않으면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그것이 좋은 운명이 되는 길이다.

육도 영도

그가 성공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기 중심은 육도 영도 다 구원 못 한다.

이를 하나님도 성령 성자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다.

제대로 해야 제대로 잘되고, 영원한 이상 세계다.

○ 하나님이 사람들을

“너는 지옥 인생, 너는 천국 인생” 으로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다.

지옥 자체는 있다.

쓰레기장, 고물과 썩은 것들이 가서 쓰레기장이 됐다.

악으로 불의로 산 자들이 가서 사는 곳이 지옥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가는 곳이다.

사망 지옥은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서 만들어졌다.

불순종자로 인해 생긴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자기 행위 삶대로 그 길을 간다.

신이 너의 운명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길을 정해 놓으셨다.

고로 네가 사망 길, 고생길 안 가면 된다.

갔더라도, 가다 고생되고 갈 길이 아니면 안 가면 된다.

○ 선생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인생들, 자기 하는 것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하시어
 그때부터 목숨 다해 살았다.
 행하는 대로 바로 달라졌다.

하나님의 운명론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열심히 행했다.
 열심히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에 대해 믿고 배우고 알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전해 왔다.
 이 길, 생명 길로 오며 따라오는 자들을 구원했다.

- 하나님이 모두 천국에 오는 것을 예정해 놓고,
 모두 하나님 믿고 생명 길,
 하나님이 있는 천국 오라고 하신다.

그런데 몰라서 안 믿고, 믿기 싫어 안 믿는다.

하나님이 그들도
 믿고 사랑하여 천국 오게 예정해 놓으셨다.
 지옥 가게는 예정해 놓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며 불의를 행하여
 자기 행위로 더 지옥 쪽으로 간다.

천국의 삶을 살아야 천국으로 간다.
 못하면 자동으로 다음 길인 사망 길로 가게 된다.
 자신이 사망 길로 갔기에 그 길에 따른 고통을 당하면서
 왜 신은 자기 안 돕고 고생하게 됐냐고 하고,
 신이 정한 운명을 내가 어찌 변경해서 가느냐고 한다.

성령도 예수님도 선생 어렸을 때

잘못 인식한 예정은 깨뜨리게
 ‘자기 책임 하는 사상’ 을 심어 주셨다.
 ‘자기 책임’ 하면 운명이 바뀐다.
 예정했어도 안 하면 안 된다.

◎ <예정론> 을 겪으면서 배울 때다.

1970년 초에 4천만 원 정도 사기 당하고서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입니까?”
 기도하며 여쭙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몰라서 당했다.” 하셨다.
 그때 ‘알면 아는 운명, 모르면 모르는 운명’ 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깨닫고서 영계 가서 보고 배우고,
 육계의 것도 더욱 배웠다.

○ 그 후 그 사기꾼은 50세, 이른 나이에 죽었다.

작은형이 “이 사람과 사업하라.” 하여 믿고 했었다.
 인삼 지주목을 현지 가서 사면
 삼분의 일이나 헐하다고 하여
 사다 팔아서 석막리 교회를 지으며 진 빛을 갹으려 했다.

그 후에 깨달은 것은 절대 기성들 말 안 믿고
 오직 하나님 성령 말만 듣기로 한 것이다.
 고로 섭리사도
 오직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말씀만 듣고
 개척하고 시작했다.

그때 작은형은

“잘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기성 교단에 매이면

네가 배우고 깨달은 성경 말씀 못 전한다.” 훈수해 줬다.

○ 〈예정론〉 배울 때

그냥 배운 것이 아니고 실체 겪고 배웠다.

시대 말씀도 모든 청춘과 시간 쓰고

돈도 투자하고 배웠다.

그래서 예정에 대해, 말세에 대해,

예수님 재림에 대해, 부활에 대해, 휴거에 대해

절대로 완전히 배우고 나왔다.

제대로 못 배운 기성들은

그들의 주장만 하며 기다렸으나

그들의 말대로는 되지 않았다.

선생 말씀이

절대 천하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었다.

고로 천년까지 간다. 아멘.

의심 없이 따라 행하여라.

◎ 구약성경을 보면 신약 때 오시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왕으로 예정했다.

또 다른 구절에는 고난의 주로 예정하여 말했다.

양쪽으로 다 예정이 되어 있었다.

(사 9:6~7)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 53:1~12 중 5~8)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 결국, 맞는 자가 책임 못 하니

영광의 주도 고난의 주가 됐다.

이같이 하나님의 책임 속에

맞는 시대가, 맞는 자기가 책임 분담하며

노력하기에 달렸다.

양면 예정이다.

예수님을 모르니 고난의 주가 됐다.

고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 사망 길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쫓겨나면서
 이들이 살아갈 곳이 형성된 곳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매
 상실한 마음대로 놓아둔다.” 하셨다.

(롬 1: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천국은 하나님이
 의와 사랑 선의 세계로 만드셨다.
 하나님 전능자를 믿고 육으로 그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사는 자들의 영이 간다.

사탄 마귀 악영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
 고로 사망 지옥 무저갱 불바다에 거한다.

○ 사탄의 시작은 이러하다.

천사가 자신의 주장과 그 주관만 옳다고 하며
 하나님 뜻을 거역하여 악이 됐다.
 악이 된 천사는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다고 하니,
 루시엘 천사장이
 “천국이 있는데 왜 세상을 창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창조합니까?” 하였다.
 세상을 창조하면

이제 하나님이 인생들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까 봐서다.
 하나님 사랑을 독점하지 못하게 되니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지상 천국 사람 창조를 반대한 것이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천사는 부모-자녀 관계다.
 고로 천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부모-자녀 관계 그 이상으로는 못 한다.
 시기 질투자 루시퍼는
 자녀 사랑만 받아도 충분한데
 왜 신부 사랑 받으려다 쫓겨났는지 깊이 알아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려 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여 사랑하려 함이었다.
 이를 알고 천사는 불만했다.
 하나님은 하나님 행하시는
 사랑의 세계를 반대한 천사를 결국 쫓아내셨다.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들이 마귀와 사탄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의 세계를 계속 방해해 왔다.
 악은 그것을 선으로 본다.

어느 시대든지 이 시대도
 하나님 사랑을 혼자 독점하면 쫓아내 버린다.

○ 섭리사에서도

자신이 하나님, 주의 사랑 받다
 새로 온 자 세울까 봐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다 루시퍼같이 쫓겨난다.
 사랑 감수성에 시기 질투하면 결국 쫓아낸다.
 그리고 다음 자가 그 위치에서 하나님 일을 맡아 사명한다.
 고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과 주 사랑 받아라.
 그것이 최고 정상이다.

또, 세상에서 악을 조직해서 행하는 자,
 그것이 자기의 삶이니
 자기 좋아하는 것만 선으로 보고
 자기 사상을 넓히고 다른 자들까지 끌어들인다.

선한 자와 의의 법, 선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불법한 자들을 보고 “저것은 악이다.” 하고 반대한다.
 결국 끝까지 가면 선이 승리한다.
 악은 갇히고 고통받는다.

○ 하나님은 선이시다.

고로 사탄 마귀 귀신 악의 편들을 모두 잡아다
 계속 지옥 흑암에 넣으신다.
 그편에 속해 가는 사람의 영도 같이 지옥 흑암으로 간다.

하나님과 성령께 시대 사명 못 해서 악으로 가면서
 “하나님 뜻이다.” 라고 자기 중심 사고로 생각 말아라.
 그것이 전혀 아니다.

하나님 믿고 그 보낸 자를 만나 그 말씀 듣고 살면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게 되니
 흑암 지옥에서 나와 하늘에 속한 영이 된다.

-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 사랑만 받아도 충분하다.
 하나님 앞에 루시퍼같이 시기 질투하면 인사탄 된다.
 이 비밀을 알고 자기 축복과 사랑만 받아라.
 자기에게 주는 사랑만 받아도 못 다 누린다.

시기 질투는 뼈가 썩게 한다.
 섭리사도 그같이 한 자 다 쫓아내셨다.
 하나님 법은 행한 대로 다 받는 것이다.

- 하나님께 사랑받으러 가면
 사탄은 계속 반대하고 막았다.
 선생도 끝까지 사탄, 인사탄이 막아 왔다.
 사랑으로 이기고 사탄을 모두 멸했다.
 고로 말씀 받아서 가르쳐 주어
 모두 사탄을 멸하게 해 주었다.

절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인사탄도 영사탄도 멸하여라.

- ◎ 영원하시고 전능하시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보낸 자 구원자를 믿지 않으면
 의의 길, 천국 길, 생명 길을 알 수가 없다.

그러한 자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거나
불법을 하다가 사망으로 가게 되는 자들이다.

○ 우리가 영계 가서 보면 안다.

높은 단계의 영은 낮은 단계의 세계와 영들을 본다.
그러나 낮은 영계, 악의 영계, 어둠에서는
하늘의 영계를 못 본다.

세상에서도 높은 자들은 낮은 자들을 본다.
낮은 위치에 있는 자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를 못 본다.

절대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영계에만 가서 있으니 온전한 하늘 세계를 못 본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지옥 사망 영계를 본다.
새 시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천국도 황금천국도 본다.

◎ 하나님이 이같이 사주팔자 운명 철학을 봐 주셨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모두 예정해 놓고 택해 놓으셨다.
그래도 본인이 해야 한다.
자기 하는 것 따라 좌우되고
그 위에 하나님 역사하심에 따라 좌우된다.

- 특히 메시아, 중심인물, 사사들, 왕들은
먼저 하나님이 택해서 기르시기도 한다.
항상 시대마다 구원자를 택해 길러서 때 되면 보내시어

하나님 말씀을 전해 구원하게 하신다.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로 미리 택해서 기르고 가르쳐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인생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 성령 성자가 직접 행하시기도 하고,
 그 조건이 되어 구원하는 자, 육을 쓰고도 행하신다.

- 다윗도 그러했다.

(시 22:9~10)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 이사야도 그러했다.

(사 49:1~3)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 예레미야도 그러했다.

(렘 1:5)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 사도바울도 그러하였다.

(갈 1:15-16)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 특별한 자는 미리 택해서 키우고 가르치신다.

정한 때를 두고 선조 때부터 약속했기에,
 약속한 선조의 가문에서 택해서 가르치며
 그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특히 예수님은 타고 나셨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족속 선조에서
 42대 만에 타고나셨다.

(마 1:17)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 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

○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두 구원받게 전체를 예정하셨다.

단,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고로 메시아 중심인물 사명자들을

예정해 놓으시고 키우셨다.

구원하려 보내기 위함이다.

땅도 이 밭은 배추밭, 이 밭은 고추밭,

저 밭은 과수원으로 정하고,

이곳은 논으로 정하고, 저곳은 집터로 정하고 개발한다.

월명동도 미리 정하시고 택하고 창조 때부터 만드셨다.

그곳으로 선생 선조 때 이사 가게 하시며

미리부터 뜻을 예정하시고 펴셨다.

하나님도 그같이 미리 예정할 것은 예정하고 행하신다.

(엡 1:11)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로마서 9:10~13)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 중심인물 사사들 선지자도
다 정해 놓고, 먼저는 키우신다.
가르치고 유능케 하여 보내서
뜻, 목적의 일들을 행케 하신다.**

○ 예수님도 “나 스스로 못한다.” 하셨다.

(요 5:30)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을 못 한다.
하나님께서 시키셨기에 한다.
택함 받기도 하고, 타고나기도 하여 행한다.
사명자는 타고난다.
이는 여자로 혹은 남자로 아예 타고나듯이
자기 운명도 타고난다 함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타고난다.**

타고나고, 자기가 행하기 따라 좌우된다.

○ 외국에 있을 때 선생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 기도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타고나서다. 타고 나서 이 길 간다.” 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글을 쓸 때

“하늘의 운명이다.

고생해도 생명 길로 가는 삶의 길이다.

이것이 최고 좋은 길이다.

고통 주는 자로 인해 이 고통을 받지만

뜻을 두고 가야 한다.

섭리사와 너에게 고통 준 자들이

어떻게 되나 끝까지 보아라.

고통받고 가는 것이 낫다.” 하셨다.

◎ 예수님은

“하늘을 위해 타고난 자도 있다.” 하셨다.

(마 19:11-12)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찌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만한 자는 받을찌어다”

타고난 대로 살아야 최고 성공한다. 이상적이다.

저마다 소질 재능이

부모 유전자로부터 타고나고, 하늘로도 타고난다.

타고난 것을 가지고 커 가면서 더 배우고 책임을 하여야
타고난 운명이 더 좋게 변화가 된다.

모든 인생도 축소 확대로 이와 같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타고난 것 위에 갖추기다.

세상의 땅도 나무도 지역도 미리 선택한다.

선택한 후에 선택한 것을 키우고

선택한 대로 개발도 한다.

이같이 모든 인생은 예정으로 타고난 것이 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그 보낸 자의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며 행하는 것이다.

○ 하나님이 절대 정해 놓은 것은 그대로 가야 한다.

자기 스스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좋아해서 택하셨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상에서

같이 살려고 택하셨다.

모두 각자 개성으로

하나님이 타고나게 하신 것이 있다.

그 타고난 것으로 수고하여

하나님과 함께 자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다.

또 네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택하기도 하신다.

잘하면 하나님도 주도 택한다.

- 관상, 손금을 보면 모두 형상 모양이 다르다.
다양하게 타고나서다.

성경을 읽어 보면

“너를 위해 두루마리 책에, 율법 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 했다.

(시 40:7)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 것도 기록되어 있다.

기록한 그대로 행하셨다.

율법은 육에 속한 것이다.

신약은 영에 속한 것이다.

관상과 손금은

‘사람 육신에 너를 새겨 놓았다.’ 함도 된다.

몸에 손바닥에 얼굴에 특이하게 새겨 놓았다.

통계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신비하게 표시해 놓기도 하셨다.

- 선생이 예수님께 “나도 새겨 놓으셨나요?” 묻고
어느 날 대전에서 길을 가는데
관상 보는 자가 계속 오라고 하였다.
그는 내 손금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선생님.” 하면서,
“15년간 여기서 손금을 봐 왔는데
최고 큰 자를 봤습니다.” 하였다.
좌측 우측 손바닥을 다 보고 말했다.

내 좌측 손에 큰 대(大)자가 새겨져 있었다.

나도 이를 처음 봤다.

오른손에는 손바닥을 가로질러 한 일(一)자 금이 굵게 있었다.

이는 지능 금이기도 하고, 정신 금이라고도 했다.

이 사람을 만나고서

예수님께 “예수님 말이 맞네요.” 하니,

“마음도 몸도 특이한 지체가 많다.

작품이지 않냐.” 하셨다.

‘생긴 대로 모양대로 형상의 관상이구나.’ 깨달아졌다.

◎ 악의 세계에서 살다가 의로운 세계에 오면 살 수 있다.

그러나 의로운 세계서 산 자들은 악의 세계 가서 못 산다.

고로 시대 하나님 뜻 속에서 살다 벗어난 자들은 고통이 많다.

벗어난 대가를 치르기까지다.

이미 빛에 속해 살아 봐서 심정으로 고통을 더 겪는다.

고로 섭리 세계에 있다 나간 자들이

못 견디고 돌아오기도 한다.

더 사망으로 가 버린 자는

악인들과 사탄이 놓아주지 않으니 못 돌아온다.

자기 신앙을 못 지켜 불신한 자들은 형벌 기간이 있다.

그때까지 고통받아야 한다.

성경에도 한 때 두 때 반 때를 기준으로 해서

40년 400년 4000년씩 역사를 두고

죄에 따른 형벌을 받은 것이 쓰여 있다.

하나님께서 천법을 선포하시면
그 벌에 따른 고통을 다 받는다.
마귀도 받고 사탄 악인들도 다 받는다.

- 의인들은 예수님같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주기 위해
조건을 세우며 고통을 받는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네 민족의 죄를 네가 담당하여라.” 하셨다.

(겔 4:4)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네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찌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햇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삼백 구십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일년이니라”

모세도 따르는 백성들이 원망하니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같이 고통받았다.
모르고 무지하면 그러하다.

(민 14:2-3)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민 14:35)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 예수님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생이 많았다.
모르고 대한 만큼 사람들도 고통을 받고
사명 받고 온 자도 고통을 받았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지는 것 말고도
일생에 상상도 못 하게 고통을 받으셨다.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고통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고통을 생각해 보아라.

○ 고생돼도 택한 길, 생명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도 주도 좋아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에 가는 길이니
기뻐하면서 가라.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세상에서도 밑의 사람이 못하면
지도자가 책임지고 그 값 받는다. 이치가 아니냐.
모든 자의 잘못에 대한 값을 내가 대신 희생하여 치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다.
곡식이 땅에 떨어져 희생해야 수백 배 결실한다.

고로 희생한 조건으로 너를 축복해 주고 있지 않냐.
하나님 성령 성자가 너를 택해서 하는 것이다.
네 인력으로 함이 아니다. 스스로는 할 수 없다.
나 하나님이 택하여서 한다.”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민족 세계를 청소하신다.
 깨끗이 해야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섭리사에도 민족에도 세계에도 펴 가신다.
 모두 기뻐하며 해야
 그로 환난 고통도 기쁨으로 이긴다. 아멘.

- ◎ 섭리사를 따르는 자 중에
 하늘의 심정 모르는 자들이
 섭리사를 위해 한다고 하면서 해를 준다.
 선생 고통 거리다.
 자기도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와 모으고 헤치지 않는 자는
 한때 쓰임을 받았더라도 결국은 제 갈 길 간다.
 그 길은 사망의 세상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하셨습니다.

(눅 11:23)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막 13:13)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 “저 사람은 충성했는데 왜 신앙이 깨졌나.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한다.
 답을 모르면 이해를 못 한다.

깊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시험도 있었고, 남이 모르는 죄도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신앙은 잘했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해서다.

하나님의 일도 자기 중심으로 해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하는데

루시퍼같이 “하나님, 그리하면 안 돼요.” 했다.

루시퍼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로 만족하고

천사로만 사랑 만족하세요.” 하니,

하나님은

“그 생각은 네 생각이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니라.” 하셨다.

그런데도 회심치 않고 회개치도 않고 따르지 않으니

흑암으로 쫓아내셨다.

섭리사에도 머리와 일체 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며 사명자 흠잡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 자기 주관으로 악평하고

자기의 그 사상을 가르치고 나간 자가 있다.

그 생각과 사상은 자기만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하나님께 자기로 만족하라고 한

타락한 천사와 같은 사상이다.

○ 하나님께 만인을 사랑해 달라고 해야 한다.

자기 사랑만 받아야 한다.

자기 사랑만 받아도 충분하다.

하나님 사랑은 만인에게 가야 한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루시퍼는 하나님 사랑을 독점하여

천사들만 독재적 사랑을하기를 원했다.

천사는 역시 영원히 자녀권 사랑이다.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들의

상대체 사랑보다 못한 사랑이다.

천사와 하시는 자녀권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하나님 창조한 자들과 하시는 상대체 사랑이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신부로 택하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아담 타락 후 6000년간 조건 세우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의 대상으로 마지막 천 년간 역사하시며

인생들을 하나님의 상대체로서 사랑하셔야 만족하신다.

○ 하나님은 과거 섭리역사 6000년 끝나고

지금 이 시대에 창조 목적 근본 핵을 실천하셨다.

고로 우리를 신부로 대해 주신다.

모두 시대 말씀 듣고 믿고 따라 행하면

시대 신부급 사랑의 하나님 대상자들이다.

천국은 자녀권 대상자들이 가고,

황금천국은 상대체 사랑의 대상자들이 간다.

누구나 다 시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가게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다.

사랑의 대상 되어 영원토록 황금천국에서 산다.

그 안에서도 다 차원급 사랑이다.

고로 육신 세상 살 때 온전한 사랑자가 되어라.

○ 그러니 요동치 말고 행하여라.

기빠 영광을 돌리어라. 낙심 말아라.

너희만 이 시대를 알고 가지 않느냐.

수백 년이 가면 수억 명씩 따라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귀하게 여기신다.

자기 때 기회 놓치면 영원히 못 한다.

이때 열심히 하자.

역사가 가면서 더 커지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자기를 만들고

하나님 성령 사랑의 대상으로서 기빠하여라.

자기 책임으로 운명이 달라진다.

길 자체가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사망 길, 생명 길 절대 분별해서 가야 한다.

항상 네 앞에는 성공 길과 실패 길, 두 길이 있다.

분별하고 확인하고 성공 길로 가야 한다.

하나님 성령 주 모시고 가야 한다.

너 혼자 가면 사탄 악인들 유혹 못 이긴다.

항상 기도와 말씀이다. 선생도 이같이 한다.

삼위의 평강을 빈다.

(말씀 마쳤습니다.)